주가	환율	금리
+17.19	-2.30	-0.02
1,296.27 (코스피지수)	952.30원 (원/달러)	4.8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5.65	(+1.57)
다우(26일)	11,102.51	(-1.20)
나스닥(26일)	2,070.46	(-3.44)
닛케이	15,179.78	(+295.71)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5.69엔	(-0.66)
유로 달러 환율	1.2734달러	(+1.22)
3년만기 회사채	5.18%	(-0.02)
콜금리	4.23%	(+0.01)

'충돌의 勞使' 관계 혁신위해 사회적 대화체제 마련해야

김금수 노사硏 명예이사장 밝혀

충돌과 모순의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 양측과 정부측의 의식·관행·행동양식을 비롯해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대화체제의 정착과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남지역경제인협회(회장 황금추)가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주최한 '노사합동 전남발전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 대화체제는 중앙과 더불어 산업(업종), 지역차원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중층적 체계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노사정파트너십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고, 지역 노사의 핵심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동부·한국노동교육원이 지원하는 노사관계발전 재정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열린 노사, 하나로 미래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한국노총 이신원 전남본부 의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銀, 서울에 4번째 점포 양재지점 개설

서울에 광주은행 4번째 지점이 개설된다.

2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서울 서초구에 서울지역 4번째 점포인 양재지점을 개설키로 하고 이날 김웅 광주은행 분실장을 지점 개설준비위원장(지점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준비작업 중이다.

광주은행은 서울지역에 75년 중구 서울지점을 시작으로 87년 강남구 강남지점, 90년 영등포구 여의도지점 등 3개 점포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완지구 아파트 내달말 분양…공동 모델하우스 오픈 임박

'명품도시' 한자리서 미리 본다

GS·대주건설 등 11개사 7,540세대 동시 공급

오늘부터 '안전 캠페인'…대대적 '수완 알리기'

광주 수완택지지구의 8월 동시분양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 업체들이 통합모델하우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수완지구는 호남지역 최초로 11개 건설업체가 동시분양에 나서는데다 아파트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통합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번 수완지구 동시분양에는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명품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대주건설 1천891가구를 비롯 ▲현진 1천181가구 ▲코오롱건설 753가구 ▲대방건설 710가구 ▲신안건설산업 582가구 ▲모아주택산업 570가구 ▲진흥기업 446가구 등을 분양한다.

이어 ▲GS건설 433가구 ▲한양 432가구 ▲새한건설 364가구 ▲영무건설 178가구 등 총 7천540가구가 동시분양된다. 개별 분양업체인 중흥건설 1천450가구, 우미건설 1천228가구 등도 8월을 전후로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8월말 통합모델하우스 오픈 '박차'=27일 수완지구 광고대행사인 '유퍼스트'에 따르면 8월말 11개 업체의 1차분 동시분양을 앞두고 통합모델하우스 공사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통합모델하우스 운영에는 대주건설을 비롯 ▲대방건설 ▲모아주택산업 ▲새한건설 ▲신한건설산업 ▲영무건설 ▲한양 ▲GS건설 등 8개사가 참여해 성공분양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게 된다.

광산구 흑석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통합모델하우스의 총면적은 1만5천여평에 달하며, 1개사당 600~1천500평의 견본주택을 짓고 있다. 모델하우스내에는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한 어린이 놀이시설, 카페테리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특히 통합모델하우스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간 '윈-윈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급자는 통합운영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요자들은 짧은 시간에 분양가·평면·입지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통합모델하우스나 동시분양의 경우 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아파트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수요자들의 입장에선 단순한 시간 절감 효과 외에도 정보 접근의 용의성, 아파트 품질 보장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전 캠페인 등 홍보도 대규모=수완지구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인 140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따라서 참여 업체는 물론 홍보대행을 맡은 '유퍼스트' 등도 신도시 규모에 발맞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5일부터 광주시내버스 100여대에 홍보간판을 게재한데 이어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의 대형 LED간판(15mX10m)을 비롯, 시내 11곳에 중·대형 홍보물을 내걸고 '수완지구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동분양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홍보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서광주톨게이트와 동광주톨게이트에서 '휴가철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안전운전 캠페인을 통해 홍보 수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휴가철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 요령을 소개하는 한편 수완지구 홍보물과 생수, 물티슈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수완지구의 8월말 동시분양에서는 수요자들이 한 자리에서 각 업체의 견본주택을 둘러볼 수 있는 통합모델하우스가 운영된다. (지난 3월 오픈한 김포 장기지구의 통합모델하우스)

패션 '바이크전' 인기 광주신세계는 이마트 패션스트리트에서 패션 바이크 전시회를 열고 야마하 YAF-R6, BMW R1100S, 미라쥬 650 등 남성미 넘치는 스포츠용 미니 바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백화점·대형마트 '올빼미 쇼핑족' 북적

무더위에 오후 5시30분 이후 집중…매출 60% 달해

한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밤 늦은 시간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올빼미 쇼핑족'이 늘고 있다.

26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폐점 2~4시간전의 매출이 하루 매출의 30%~60%대에 육박하는 등 올빼미 쇼핑족들로 인한 매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3주간 시간대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매출액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또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또는 오후 8시30분 폐점때까지 매출액도 전체의 28% 를 차지해 오후 5시30분이후 매출액이 전체의 60% 가까이 됐다.

이같은 현상은 낮 시간대 무더위를 피하고 저녁 시간대 화랑과 문화센터,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도 지난 4일 개점한 이마트의 시간대별 매출추이를 17일까지 2주간 분석한 결과 폐점 직전 2시간동안인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매출이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또 밤 8시부터 10시까지는 15.4%로 폐점 4시간동안의 매출 합계가 26%로 집계됐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이와함께 심야 쇼핑객을 대상으로 일명 '타임서비스'를 실시해 과일과 야채, 생선, 즉석식품 등을 정상가의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야채와 과일의 경우 밤 9시이후 폐점까지 30~50%, 초밥 등 즉석식품은 밤 10시이후부터 각각 30~50%까지 싸게 팔고 있다. 수산물은 밤 8~9시는 20%, 9시~10시30분은 30%, 10시30분부터 폐점까지는 50% 할인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배영석 점장은 "밤 8시이후 매출비중이 30%를 넘어야 심야영업이 본격화 됐다고 할 수 있다"며 "장마가 끝나면 피서를 겸한 올빼미 쇼핑족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호중 신용등급 조정

'A2-'→ 'A2+' 2단계 상향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강수현)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주)의 기업어음신용등급 평가결과 기존 'A2-'에서 2단계 상향 조정된 등급인 'A2+'를 받았다고 밝혔다.

'A2+'는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우수하다는평가로,최고등급인 'A1'의 바로 아래 등급이다.

한국신용정보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로서 ▲세계 신조선시장 5위권의 시장지위 ▲현대중공업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 양호한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 대규모 선수금 유입에 따른 원활한 현금흐름,' 차입금 의존도가 2001년 47%에서 8%대로 대폭 줄어드는 등 향후 전망을 밝게 함으로써 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을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한 'A2+'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